

시론



신 춘 우

광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논어(論語) 헌문(憲問) 편에 따르면 어느 날 제자 자로(子路)가 공자(孔子)에게 물었다. “인간으로서의 완성(成人)이란 무엇인가요?”

자로의 성은 중(仲), 이름은 유(由), 자(字)는 자로 또는 계로(季路)로 지금의 중국 산둥성(山東省) 사수현(泗水縣)인 노(魯)나라 변읍(卞邑) 출신으로 공문심철(孔門十哲) 중 한 사람으로 공자의 사당에 배향돼 있다.

자로는 성격이 강직하고 융통했으며 부모에 대한 효심이 깊었다고 한다. 자로는 공자보다 생년이 9년 늦어 공자의 제자 중 가장 연장이자면서 중심적인 인물로 제자라기보다 친한 친구이자 엄격한 비판자로 평가되기도 한다.

사기(史記)에 따르면 자로가 공자의 문화생 입문 초기에는 공자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등 공자의 정책에 비판적이었으나 점차 공자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화되어 이후 헌신적으로 공자를 섬겼다고 한다.

자로는 공자가 고향인 노(魯)나라를 떠나 14년간 각국을 떠돌며 천하유세와 망명 생활을 할 때 끝까지 함께한 인물로, 이후 자로는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장현(長垣)인 위(衛)나라 포읍(蒲邑)의 행정 책임자인 읍제(邑宰)를 지냈다.

이런 자로를 공자는 “달아빠진 솜옷을 걸치고 여우와 담비 가죽을 입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자”라고 해 그의 꾸밈없고 소박한 인품을 높이 평가하면

서도 “일을 잘 해아려 사리에 맞게 하는 것이 없다”고 해 성급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공자는 자로에 대해서 “성격이 거칠고 융통스러운 일과 힘쓰는 일을 좋아하고 의지가 강하고 정직했다”라고 하면서 늘 그의 성급하고 거친 성정을 경계하게 했다고 한다.

이런 자로가 스승에게 ‘인간으로서의 완성(成人)’에 대한 질문을 하자 스승이자 오랜 벗으로서 다음과 같이 답했다.

자왈(子曰), “약장무중지지(若臧武仲之知), 공작지불욕(公綽之不欲), 변장자지용(卞莊子之勇), 염구지예(冉求之藝), 문지이례악(文之以禮樂), 역가이위성인(亦可以爲成人矣)”

장무중(臧武仲)의 지혜(知), 맹공작(孟公綽)의 청렴함(不欲), 변장자(卞莊子)의 용기(勇), 염구(冉求)의 재주(藝)의 예악(禮樂)으로 스스로 덕을 쌓으면(文之) 인간의 완성(成人)이라고 할 수 있다.

장무중은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의 대부(大夫)로 지혜롭기로 이름이 높아 성인(聖人)으로 불렸으며, 맹공작은 성품이 청렴결백해 공자의 중시를 받았으며, 변장자는 춘추시대 노나라 변읍의 대부로 제(齊)나라가 노나라를 침략하고 싶어도 변장자 때문에 감히 변읍을 지나갈 수 없었다고 할 정도로 융통스러운 인물로 전해진다.

공자는 자로의 ‘인간으로서의 완성(成人)’에 대한 질문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답했는데, “하지만 오늘날 인간의 완성(今之成人子)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 게 뭐 있는가? (何必然)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하고(見利思義), 위기에 처하면 목숨을 바칠 줄 알며(見危授命), 오래된 약속(久要)이라도 잊지 않는다면(不忘) 완성된 사람(成人)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권리사의 권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 유래됐다. 즉 공자

는 인간으로서 완성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칠 용기가 있으며, 오래된 약속이라도 잊지 않고 지키는 사람을 완성된 사람이라고 한 것이다.

또한 권리사의 권위수명은 안중근 의사의 유묵(遺墨)으로도 유명한데, 이 글귀는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암울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쓴 글귀로 알려져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민들 중 특히 많은 청년들이 인근 국가에 해외취업 사기와 관련해 납치, 감금, 고문 등의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많은 청년이 삶의 터전을 떠나 해외에서 그 중 상당수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점은 지역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정책과 청년고용 정책 등과 관련한 심각한 현재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캄보디아 범죄에 연루된 청년들 상당수는 비수도권 지역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왜 많은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이 이처럼 지역을 떠나 해외 취업을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본다.

물론 일부 청년들은 자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될 것을 알고도, 또는 아무런 전문 자격이나 기술도 없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욕심으로 출국을 강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해서 사회의 선배로서 안타까움을 떨칠 수가 없다.

늦게 마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청년들이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사회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바칠 용기를 갖추고, 오래된 약속이지만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사회의 어른들로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봤으면 한다.

견리사의(見利思義)

광주, 현실의 한계를 기회로 -마이스 산업이 길을 연다

류형 경제를 뒷받침할 가장 현실적인 기반이기 때문이다.

5성급 특급호텔 건립

글로벌 행사는 숙박의 품질이 도시의 품격을 결정한다. 광주에는 여전히 5성급 특급호텔이 없다. 컨벤션센터 인근에 프리미엄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연회장·비즈니스 라운지·통역·이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숙박 문화 비즈니스가 결합된 체류형 마이스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광주공항, 여객과 물류의 이중허브로

광주공항의 국제공항화는 광주 경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무안공항의 의존을 벗어나, 단기적으로 국제선 재개(동북아·동남아 노선), 출입국·검역 라인 정비, 야간 슬롯 유연화를 추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활주로 확장과 국제선 전용터미널 신설, 수하물·보안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광주국제공항’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제선 부활의 목적은 단순한 여객 편의가 아니다. 광주·전남의 신선농수산물과 첨단 반도체·전장부품 수출을 위한 항공 물류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공항의 벨리카고(화물칸) 기능을 코드체인 시스템과 연계하면 ‘사람이 오고 상품이 나가는 도시’로서 광주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다.

도심 관광과 광역 연계

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근대역사마을 충장로·대인예술시장 송정역시장으로 이어지는 도심 관광벨트를 정비하고, 광주에서 1시간 내 접근 가능한 담양(죽녹원·메타세쿼이

아길, 한옥 미식)·고창군(고인돌유적·운곡습지, 갯벌 체험)·화순군(운주사·적벽관·웰니스 관광)·순천시(순천만 국가정원·습지, 정원문화)·나주시(빛가람 혁신도시 에너지콘텐츠, 영산강 생태 투어)를 연계한 1일 마이스 익스커션 코스를 상설화해야 한다.

또한 광주 인근 골프장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해 ‘회의+골프+관광’ 패키지를 운영하면 기업 인센티브 수요와 VIP 네트워킹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

산업 연계형 마이스로 확장

광주의 강점인 AI·에너지·문화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포럼과 기술 전시회를 상시 운영하자. 특히 반도체·전장·AI 분야와 연계된 산업형 마이스를 구축하면 투자와 수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성과형 마이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광주의 현실적 도약 축은 제2전시장 조기 건립, 5성급 특급호텔 건립, 광주공항 국제공항화(여객+물류)이다. 여기에 도심 관광루트+광역 연계+골프·수출 연동형 프로그램을 결합하면, 광주는 ‘행사 개최지’를 넘어 체류형·수출형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광주는 성장잠재력이 크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가능한 길, 광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해법 그것이 바로 마이스 산업이다. 이제 광주는 현실의 한계를 기회로 바뀌어 한다.

1인 시위, 표현의 자유와 책임

이렇듯 1인 시위는 한 사람의 표현적인 자유로 폭넓게 보장받고 있어 또다른 시위 문화로 자리 잡고있지만 무조건적, 절대적인 보장은 결코 아니다.

다수인이 1명씩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진행하는 ‘인간 띠 잇기’나 소속은 다르더라도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공동의 목적으로 각자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형태의 ‘혼합 1인 시위’ 등의 변형에 대해 판례는 집회로 판단하

고 있다.아울러, 1인 시위라 하더라도 과도한 소음 및 업무 방해 등 피해정도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또는 업무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어느 누구나 누릴수 있는 1인 시위, 다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와 준법정신이 동반하는 문화로 정착되길 필자는 간절히 바래본다.

〈김현철·광주서부경찰서 경비과〉

독자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반면, 1인이 피켓 등을 소지하고 자신의 주장,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인 1인 시위는 명칭과 달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에서 명시된 다수인의 개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전 신고의무가 없으며 집시법 상 소음관리 규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광주 시민 산책로 합성 섬유 아자매트 당장 철거하라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달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무등산 다남길 등 둘레길과 산책로 7곳에 조성된 ‘아자매트’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했더니, 유해한 합성 섬유가 발견됐다. 통상 코코넛 껍질에서 뽑아낸 섬유를 꼬아 만드는데,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토질 오염 우려와 함께 토양 생물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아자매트 규모는 광주 전역에서 길이는 약 7.6km, 면적은 6천400여㎡에 이른다. 자치구별론 동구 학군단·깃대봉·두암제2근린공원 등 9곳 2천280㎡, 서구 금당산·짚봉산 등 3곳 190㎡, 남구 푸른길공원·월산근린공원 등 14곳 3천424㎡, 북구 한새봉·군왕봉 등 29곳 4천852㎡, 광산구 원당산·월곡근린공원·황룡강 생태공원 등 11곳 3천6㎡이다. 광주시는 5개 구 전수조사를 토대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환경단체가 제기한 구간을 벗어난 범위까지 폭넓게 파악하는 중으로, 현재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추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연의 아자매트는 자연스럽게 분해되고 토

양 보습 등의 효과도 있다. 그러나 합성 섬유가 섞였다면 애기가 다르다. 지상에 노출된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 노후화되고, 오기는 사람들의 발걸에 밟혀 닳아 해지고 부서지면서 사라지기까지 수백년이 걸리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신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토양에 직접 침투할 경우 통기성과 배수성을 떨어뜨려 식물의 뿌리 성장을 방해하는 등 생태계를 훼손하고 교란한다. 실로 그 위험성이 크다. 환경련은 일부 제조업체가 비용 절감과 내구성 향상을 이유로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과 같은 합성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보인다면 정밀조사를 요구했다.

전면 철거하고 즉각 교체해야 하겠다. 아울러 아자매트가 친환경 제품으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고 있는 만큼 시험성적서, 품질·환경 확인서 등 서류의 위조 여부와 기준 미달 제품 등 록된 것은 있는지 전방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아자매트 설치와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예산 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미적거릴 일이 아니다.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과잉 생산파른 전북산업 위기 극복 더 속도감있게

김영록 전남지사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맞춤형 시책을 발표했다. 가두리 시설 감축 지원, 소규모·영세 어가 금융안전망 구축, 대출구조 개선, 전북 제품 국산화 및 브랜드화, 원스톱 통합거점센터 조성이 그것이다. 김지사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산지가격이 2014년 1kg(10㎡)당 4만6천304원에서 2024년 2만3천222원으로 절반 수준 폭락했다. 올해 들어서도 9월 기준으로 2만3천원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종자 생산과 양식 기술 발달, 가두리 시설량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2024년 전체 생산량이 2만3천355톤으로 10년 동안 163% 늘어난데 따른 필연적 결과다. 여기에 어가의 대출 규모도 1억2천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1.6배에 달하는 등 경영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대내외에서 품질과 우수성은 이미 인정받고 있다. 전남산의 명성은 자자하다. 고수온 피해와 국내 경기침체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지난 8월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열린 특별별전도 성황을 이뤘고, 추석 대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강서구 마곡광장에서 개최한 상생 판촉전 역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선 활전복 활인 판매, 전복찜 시식, 나눔이벤트, 파기 체험 등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복은 저열량·저지방·고단백 식품으로 건강상의 이점과 뛰어난 맛을 자랑한다. 전남 수산경제를 이끄는 핵심 품종으로 자리잡았다. 한 해 생산액은 5천억원대로 지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원도 등 9개 시군에서 3천400여 어가가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위태로운 전북산업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나섰다. 소비 부진으로 어려운 어가에게는 희망을 주고,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행복을 선물할 수 있어야 한다.

어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분야별 지원방안이 동시다발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금융지원 및 유통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건의, 정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총력전이다. 어민에게 실질 도움이 돼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광고문의	650-2099	마케팅본부
	경영지원국	650-2070	650-2011
	사업본부	650-2007	650-2007
	업무국	650-2020	650-2020
	FAX	광국국	650-201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